

메달로 나뉜 20세기 고승 수행한담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다시 부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⑫

即體之用故 慧不難定 即用之體故 定不難慧 定則慧寂 寂而常知 慧則定寂 寂而常寂 如 慧則定寂 寂而常寂 如 慧則定寂 寂而常寂 如

는 비록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고요함을 취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깨달은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앎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였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스스로가 깨쳐서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된 사람이다.' 하였다.

그러서 본체를 떠나지 않는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을 떠나지 않은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앎 있는 것이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한 것이다. 그래서 조계스님이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한 말과 같다.

若語如是 任運寂知 遵照無二 약오여시 입운적지 차조무이

則達人分上 定慧等持之義 不落功用 즉달인분상 정혜등지의의 불락공용 元自無爲 更無待地時節 見色聞聲時 원자무위 경무특지시절 견색문성시 但伊覆 着衣喫飯時 담이마 착의작반시 但伊覆 闍黎送尿時 但伊覆 對人接語時 但伊覆 乃至行住坐臥 대인접어시 단이마 내지행주좌와 或語或默 或喜或怒 一切時中 一 혹은혹묵 혹은혹노 일체시중일 一如是 似虛舟飄浪 隨高隨下 일여시 사허주가랑 수고수하 如流水轉丸 遇曲遇直 而心無知

마음에 산란함 없는 것이 선정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지혜

則是爲禪門者 雙修定慧也 즉시위문개자 쌍수정혜야 若言先以寂寂 治於緣慮 後以惺惺 약언선이적적 차어연여 후이성성 治於昏住 先後對治 均調昏亂 차어혼주 선후대치 균조혼란 以入於靜者 是爲漸門功機所行也 이입여정자 시위점문열기소행야 雖云惺惺寂靜 未取靜爲行則 수운성적등지 미취정위행즉 豈爲了事人 不離本寂本知 기위오사인 불리본적본지 任運雙修者也 故曹溪云 自悟修行 입운쌍수자야 고조계은 자오수행 不在於靜 若靜先後 即是迷人 부재어정 약정선후 즉시미인

여류수전산 우곡우직 이심심무지 今日騰騰任運 明日任運騰騰 금일등등입운 명일임운등등 隨順來緣 無障無礙 수순종연 무장무애 於善於惡 不離不受 어선어악 부단불수

그러므로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라서 어떤 특별한 때도 없다. 즉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러하고, 웃고 밥 먹을 때에도 그러하고, 흥하고 오줌 눌 때에도 그러하고, 남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하고, 내지 걸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 항상 그러하다. 마치 빈배가 물결을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지나갈 때 굽이돌아가기도 하고 바로 흘러가기도 하듯이 마음마음이 알음알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온갖 반연을 따라다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는다는 생각도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만약 이처럼 깨달아서 고요함과 앎 있는 것에 자유로워서 선정(定)과 지혜(慧)가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이 곧 돈돈에 들어간 뛰어난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정신으로 흥미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를 따라 다스려 흥미함과 산란함을 가라앉혀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

1900년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화와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다시 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 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까이 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결산하는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 보급 불사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근세 100년, 수행 교화로써 영향력을 보여 기념메달로 다시 다가온 16인의 큰스님들의 수행한담을 모았다. <계재 무순>

만공스님

어느날 대중들이 수박공양을 할 때 만공선사는 홀로 나무가지에서 우는 매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매미를 가장 빨리 잡아오는 사람에게 수박값을 받지 않겠다. 못 잡아오는 대중에게는 동전 서푼씩을 받아야겠다." 이말에 대중스님들이 각자 한마디씩을 했다. 어떤 스님은 매미를 잡는 시늉을 했고, 어떤 스님은 매미우는 소리를 냈다. 금봉스님이 만공선사 앞으로 오더니 불쑥 동전원을 그려놓고 말했다. "상(相) 가운데 부처가 없고 부처 가운데 상이 없습니다."

그말을 들은 만공선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보월스님이 들어왔다. 만공선사가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보월스님이 즉시 주머니 끈을 풀고 돈 서푼을 꺼내 만공선사에게 속내 밀었다. 그러자 만공선사가 말했다. "자네가 내 뜻을 알았네." 깨달음에는 형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금봉스님은 형상의 유무에 집착한 반면 보월스님은 형상을 뛰어넘는 자재(自在)한 현실을 내보였다. 선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재적임을 이 선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71~1946, 수덕사 조실>

용성스님

19세 때 남원 덕말사에서 출가해 누더기를 걸친 스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스님은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고운사 수월스님을 찾아갔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성품을 알겠습니까." 수월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보이며 "전수대비주와 육자진언을 외우라"고 답하였다.

이에 스님은 곧바로 무문관에 들어가 1백일 동안 '육자진언'을 지송하며 마음속의 의심을 풀기 위해 정진을 계속했다. 이후 양주 보광사 도술암으로 수행처를 옮긴 스님은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후 문을 걸었다. 턱밑에 송곳을 세우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물 한모금 먹지않고 수행하던 스님은 7일째 되던 날 그믐밤에 불이 비치듯이 품었던 의심이 무너지고 이치를 깨달았다. <1864~1940, 3.1독립운동 33인중 한 분·대

각사 조실)

영호스님

금봉·진용스님과 함께 근대불교사의 3대 강박으로 평가받는 스님의 불교관은 '천지만물이 나와 한 뿌리, 한 몸'이라는 화엄적 세계관으로 압축된다. 부처님을 현상에 내재한 채 중생을 구제하는 살아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 세계와 중생은 보다 원융적 화엄을 실천할 도량으로 보았다.

스님은 '불교강사와 정분금침'이란 글을 통해 "자만, 게으름과 신만함, 이기심, 인색·탐욕심, 자기 단점 숨기는 것 등 다섯가지 때문에 불교인의 정신이 몰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고(貢高) 대신 허심박화(虛心博學)을, 뇌산(濼散) 대신 용맹정진(勇猛精進)을, 위아(爲我) 대신 망아이생(忘我利生)을, 간탐 대신 회사원통(高捨圓通)해야 된다"고 설했다. <1870~1948, 조선불교 교정(중정)·동국대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만해스님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강조하고 불교와 정치의 불리론을 펴면서 스님은 참선, 선교관, 그리고 선사를 새롭게 이해했다. 마음을 맑혀 만물의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돈오'의 핵심이요, 중생구제를 위하여 불교적 언론이나 실천의 지침을 얻는 과정은 '집오'이니, 그의 선교관은 '돈오집오론'으로 볼 수 있다.

1914년 <불교대전> 발간 이후 설악산 오세암에서 피나는 선수업에 몰입, 설악의 대자연을 호응하다가 문득 자신의 길은 내면 세계를 관조하면서 '구름이 흐르거나 누군 나그네 아니며, 국화 이미 피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화두를 들었다. 1917년 12월 3일 밤 10시경 좌선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심 덩어리가 씻은 듯이 풀렸다. <1879~1944, 독립운동가·시인>

한암스님

선사이면서도 경학에 막힘이 없었고, 율사를 면모를 견지한 스님은 1951년 국군이 복진할 당시 공비의 소굴이 된다하



◇만공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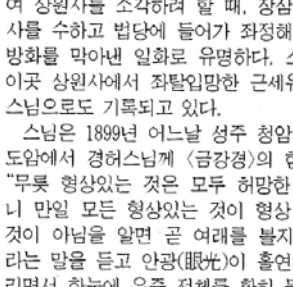
◇용성스님



◇영호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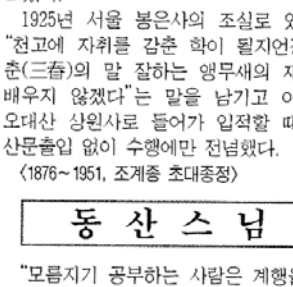
◇만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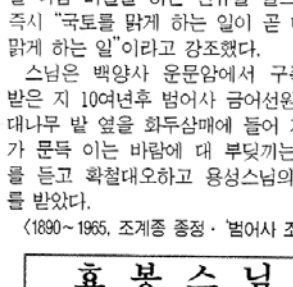
◇동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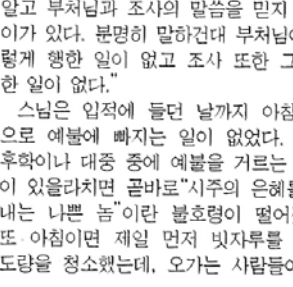
◇효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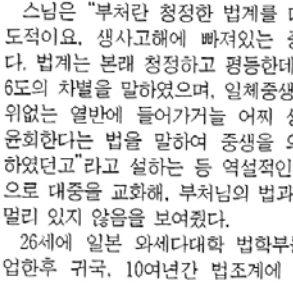
◇한암스님



◇효봉스님



◇한암스님



◇효봉스님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 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펴보고 참여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 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베트·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 문의전화 : 선재여행사 (02) 582-6647~8 불교신행연구원 (02) 582-6613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가 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다까?

영기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영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기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9세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